



성가복지병원 소식지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2022년  
발행처·성가복지병원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너리  
성가복지병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무료병원



**무료 밥집**  
**Free Restaurant**

**장소** : [쉼터; Gaia] 1층  
**시간** : 주 2회(화요일, 토요일) 11:00~14:00  
**Where** : The 1st floor of the shelter; Gaia  
**Time** : TUE and SAT 11:00~14:00



**이·미용**  
**Free Haircut**

**장소** : [쉼터; Gaia] 지하 1층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13:00  
**Where** : The 1st basement floor of the shelter; Gaia  
**Time** : SAT 10:00~13:00



**샤워실 이용**  
**Free Shower**

**장소** : [쉼터; Gaia] 지하1층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13:00  
**Where** : The 1st basement floor of the shelter; Gaia  
**Time** : SAT 10:00~13:00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너리  
성가복지병원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1(하월곡동)  
대표전화 02.940.1500/ 팩스 02.940.1535(사회사업과)





# 성가복지병원 기도문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만나는 주님의 모습은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영이 저희를 도우시어  
낯선 모습 속에 가려졌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과 손길, 눈빛과 말씨로  
병드신 주님의 육신과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해 가는 사명으로  
초대된 저희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이가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돌보는 저희가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파괴되는 지구를 되살리는 생명의 표징이 되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성가복지병원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 Contents 2022



표지  
-  
외래환자  
김광중 님

발행년 2022년 | 발행처 성가복지병원  
전화 02.940.1500(대)  
주소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하월곡동)  
홈페이지 www.sgbokji.or.kr

## 성가복지병원 소개

04 설립목적 · 운영방침 · 사업안내 · 운영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 여는 글

07 빈 마음으로 말없는 실천을 다짐하면서\_  
병원장 김 필리아 수녀

## 강생의 자리

10 맞아, 복지병원에 왔제\_ 전산과 김 디도 수녀  
13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_ 사회사업과

## 나눔의 기쁨

18 성가복지병원 봉사는 언제나 1순위\_  
자원봉사자센터 정 안젤로 수녀  
21 사랑에는 큰 힘이 있다\_ 봉사자 고은샘  
24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_ 후원자 김용승 아오스당

## 감사의 마음

28 나누면 보이는 소중한 것들\_ 외래진료 봉사 조이현  
31 성가복지병원 봉사활동 소감문\_  
봉사자 박세진(베드로) / 정치혁(미카엘)

## 성가 소식

35 성가복지병원 1년 돌아보기  
42 우주적 공존의 집, 성가복지병원 [쉼터; Gaia]  
45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

# 성가복지병원



## 설립 목적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영성과 사명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무탁한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운영 방침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의료서비스 (입원, 외래 등)는 무료로 한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지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사회심리적, 재활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전인 재활을 지향한다.

## 운영 현황

### 직원 현황

01

수도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전기 및 기관 기사를 포함한 기본인력

### 자원봉사 활동 분야

02

- 의료지원(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실, 치위생사)
- 이·미용/목욕/청소/세탁/재봉/안내/도서
- 영양과, 무료 밥집(설거지, 배식, 청소)

### 지원

03

정부 지원 없이 정기 및 비정기 회원의 후원과 수도회 지원 현물 후원으로 운영

### 병상수

04

- 1병동
- 6층(13실, 33병상): 호스피스, 중증·경증환자

### 진료과목

05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통증클리닉, 영상의학과

## 사업 안내

- 진료(외래, 입원)
- 호스피스
- 타 기관 연계
- 무료 밥집(매주 화·토요일 점심)



## 입원 & 외래진료

### ■ 대상

차상위 계층,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무탁자, 외국인 노동자, 호스피스

### ■ 서류 준비

의사 소견서, CD복사(CT 또는 MRI 마지막 촬영분), 영상의학판독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수급자의 경우)

### ■ 선별 방법

#### 1. 외래환자의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회사업과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입원환자의 경우

사회사업과 전화상담 및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 상담 시간

화~토요일 09:00~16:30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사회사업과 전화 02) 940-1561~3 / 팩스 02) 940-1535

### ■ 외래 진료시간

홈페이지(<https://www.sgbokji.or.kr/>)에서 진료 일정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향모를 땅으며」라는 책에서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 되려면 빈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나무 열매를 맺어 나간지 어느덧 32년의 세월을 지낸 성가복지병원이 모든 시간 안에서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여드리며, 마음과 행동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 길목마다 후원자, 봉사자, 직원들 그리고 병원을 거쳐 간 많은 환자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있었고, 지금의 아름다운 희망의 장소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곳에 하느님의 사랑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가복지병원이라는 씨눈에서 새롭고 환한, 그래서 밝은 내일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고객이신 예수님을 넘치는 은총으로 돌보라는 명령을 받고 있음을 고

## 빈 마음으로 말 없는 실천을 다짐하면서...



병원장\_ 김 필리아 수녀

백하며, 병원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두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에 걸쳐 성가복지병원과 심터의 외부, 내부 재단장을 하면서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성가복지병원을 리모델링

하여 재단장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올해도 5월부터 8월 말까지 쉼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내부 재단장을 하면서 어둡던 공간이 밝고 세련된 분위기로 변화되어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공간, 배려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예전에는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뒤쪽에 나무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천막을 걷어내고 정원으로 꾸며져 쉼터 건물도 살아나고, 나무들도 행복한 숨을 쉬는 기쁨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이 넘도록 무료 밥집을 중단했던 쉼터가 재단장 후 9월 16일 축복식을 하였고, 9월 17일부터 무료 밥집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반응 또한 놀라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예쁘게 바꾸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공간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발걸음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기쁘고 행복한 장소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매 순간 붉게 물든 저녁노을처럼, 밝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모두에게 참 좋은 인연이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함께 고군분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쉼터를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직원, 건설 관계자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은인들과 성가소비녀회 수도공동체에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강생(降生)의 자리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 1테살 5, 16~18 -



## “맞아, 복지병원에 왔지!”

전산과\_김 디도 수녀

외래와 안내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간호 학생 사진 촬영을 위해 3층에서 2층 그리고 1층에 내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토요일을 병원에서는 ‘장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1층 홀에는 많은 환자들이 접수를 하고 약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곳에 온 것이 실감 났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른 소임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의 복지병원이라는 사실은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감도 잠시 뒤로 하고 병원 앞 길가에 누군가 자고 있다는 말을 사회사업과 담당 수녀님에게 듣고 기사님과 다 함께 나가 보았습니다. 전에 영안실로 사용했던 문 난간에 딱 맞아떨어진 제법 파스한 햇볕을 이불 삼아 세상 편히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인가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왠지 반가웠습니다. 잠을 깨우자 처음엔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가늘게 눈을 뜨면서 어제 밤늦게 일하느라 잠을 못 잤다며 잠깐의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명당자리를 차지하셨네요?”라는 소리를 듣고는 일어나 앉으시며 창피하다는 말과 함께 눈에서 잠을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깨에 메고 있는 카메라를 보시더니 당신을 모델로 하여 사진을 찍은 적이 많다고 하여 “그럼 저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하자 살포시 웃는 미소가 세월은 변했어도 젊은 시절의 모습이 기억 속에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끼리 통용되는 “술 안 드시면 천사가 따로 없는데, 그놈의 술이 문제야~” 라는 말을 다시금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분에 대한 기억 중 하나로 의무기록실 수녀님에게 고추 모종 2개를 선물하여 옥상 텃밭에서 키웠는데 사람 키 삼분의 이 크기로 자라 수녀님들도 놀라워했고,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보여 드렸더니 엄청 기뻐하며 함께 웃었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021년 병원 공사로 전반적인 단장, 특히 1층 홀의 변화와 함께 든든한 버팀돌이 되었던 기둥이 실내장식을 통해 산뜻한 장식적으로 바뀌고, 사무실이던 3층은 외래로 사용하면서 좀 더 여유로운 진료 공간이 되었습니다. 통합 사무실인 5층에서 전산과 소임을 하며 복지병원 가족이 된지 벌써 7개월째 접어듭니다. 총원에서 오랜만의 외출(?)과 새로운 소임으로 걱정과 긴장도 있었지만 시설과 과장님의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말을 들으며 “맞아, 복지병원에 왔지!”라는 침묵의 합성을 질러봅니다. 또한 이렇게 기억 속의 환자를 만나게 되고, 첫 소임지였던 이곳에 다시 왔다는 안도감으로 편안한 숨을 쉬어봅니다.

청원 실습을 했을 때 원장수녀님의 “일상 안에서 단골은 반가운 손님이듯이 우리 병원에도 단골 환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혀를 끌끌 차다가도 안 보이면 궁금해지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되는 것이 우리 병원 환자입니다. 그러니 만나게 되면 ‘또 오셨네요!’ 하며 기쁘게 맞이하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채우다 보면 항아리에 물이 차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설립자 성 신부님의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자들을 사랑하시오’ 유언을 뺏속까지 각인하면서 오늘도 성가복지병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어갑니다.

##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회사업과

중국 연변에서 살던 조선족 ○○님은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살다가 돈을 벌기 위해 10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살다 보니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숙을 하던 중에 알게 된 교회 목사님이 아픈 ○○님을 돕기 위해 여러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불법체류자에 가족이 없는 ○○님은 모든 병원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성가복지병원으로 찾아온 ○○님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목사님은 잃었던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하느님을 체험했노라고 하셨습니다. ○○님이 처음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는 위급한 상태였기에 시립병원으로 의뢰를 하였고, 안전망병원 지원 사업으로 도움을 받아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다시 오셔서 입원치료 중에 있는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때 어떠셨나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있다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너무 큰 수술이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치만 이렇게 살아왔어요.



서울의료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내기가 어떠신가요?



좋아요. 간호사들도 잘 해주세요. 밥도 잘 나오고 다들 잘 챙겨주셨어요. 그 전에 병원에 있을 때는(כות줄 때문에) 식사도 못했어요.



정말요~ 처음 오셨을 때는כות줄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입으로 식사하실 수 있네요.



네, 이제는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 서운해요.



잘 적응하며 지내셨는데 이제 퇴원하신다니 섭섭한 마음 이시겠어요.



네, 섭섭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 계획이세요?



이제 돈 벌어야지요. 근데 겨울에는 일 하기가 어려워요. 몇 달 동안은 교회에서 지내야겠죠. 내년에 병원에 또 와도 되나요?



또 입원하신다구요? 건강해지셔야죠!(웃음)



맞아요. 맞아. 건강이 제일이야.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계시는 동안 만났던 의사, 간호사, 수녀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있는 동안에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감사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병원에 진료 갈 때도 같이 가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음장애로 인해 더듬더듬 말씀하셨지만 ○○님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진심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어느 날, ○○님은 목사님과 함께 병원 문을 나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코에는 콧줄을 끼고 계셨던 ○○님이 이제는 혼자 걷고 식사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희는 ○○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님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처 입은 이를 품어 안고, 치유하시는 하느님께 찬미를!



## 나눔의 기쁨

사랑 안에서는 청소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 성가소비녀리 열림과 성대덕 신부 -

## 성가복지병원 봉사는 언제나 1순위

자원봉사자센터\_정 안젤로 수녀

“가난함과 가난한 이, 미소한 이들을 사랑하시오.”라는 설립자 성재덕 신부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성가복지병원은 다양한 벗(友)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계획하거나 약속하면 또 다른 일들이 겹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며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매시간 언제나 ‘성가복지병원의 봉사를 1순위’로 두신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 바로 성가복지병원 자원봉사자이십니다.

2019년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병원의 일상에서 직원, 수녀님들과 함께했던 봉사자들이 더 이상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봉사자의 도움 없이 환자를 돌보고 병원 곳곳을 살피며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시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불안과 초조함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 병원 가족들과 수녀님들은 봉사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이 반복되며 코로나19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부터 기존 봉사자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지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고 “성가복지병원입니다.”라는 첫마디를

전하면 우려와는 달리 한결같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봉사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수녀님, 봉사할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성가복지병원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움과 기쁨을 고스란히 전해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그저 고맙고, 병원에 대한 그들의 애정에 감탄할 뿐입니다. 더불어 성가복지병원 봉사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봉사자들과 아직 봉사 활동을 보류한 수혜처라고 하면 가능할 때 제일 먼저 알려달라는 당부를 남기시는 봉사자들의 연락이 참으로 반가운 요즘입니다. 가끔은 고령의 봉사자께서 힘든 노력 봉사를 하신다고 하여 저희에게 행복한 난처함(^\_^)을 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든든한 기도 봉사로 함께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기쁘게 받아주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분, 봉사를 위해 자신의 휴일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분, 의료·간호·목욕·청소·미용·무료밥집·노력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쁘게 봉사하는 이들은 진정 우리 병원을 아끼며 사랑하는 소중한 벗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앙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경북대학교·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친구들, 전공과 무관하게 봉사하는 많은 대학생 친구들은 이곳을 환하게 비추는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내 집처럼 편안한 성가복지병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는 병원을 찾아오시는 아픈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는 환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는 후원자, 직원, 수녀님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성가복지병원의 봉사를 1순위로 두신 자원봉사자들의 밝은 미소가 병원을 가득 채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 사랑에는 큰 힘이 있다

봉사자\_ 경북대학교 동아리 「플로렌스」 고은샘

성가복지병원은 저에게 참 의미가 많은 병원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봉사는 처음이라 봉사를 오기 전에는 많이 떨리기도 했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가 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이곳에서의 봉사는 매번 따뜻하고 의미 있는 기억들로 남았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느껴졌던 안온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처음 만나는 것임에도 오래 알던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해주는 수녀님들과 선생님들, 때때로 눈이 마주칠 때면 종종 오가는 환자분들과의 작은 웃음 덕분에 첫 봉사부터 병원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결같은 수녀님들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주로 봉사하는 1내과는 다른 과에 비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기에 봉사를 마치고 나면 꽤 피로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항상 밝게 웃으며 응대하시는 수녀님들을 보면 항상 존경스럽고 그런 모습들을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녀님들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

니다. 능숙하고 차분하게 환자분들을 만나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의료인이 되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다보면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들, 외국인 환자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몰랐기에 초반에는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고 상호작용이 쉬운 환자들뿐만 아니라 나이와 언어 등의 문제로 대화하기가 조금 어렵고 난감한 환자들과도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매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케이스들을 직접 보며 알아가고, 간단하고 작은 일이지만 활력 징후를 재거나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검사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학생간호사에게 귀하고 값진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더 배워가고 싶은 마음에 봉사를 나올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



게 되고, 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때도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져서 더욱 이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성가복지병원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전에 오셨던 환자분을 또 만나면 안타까우면서도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고, 전보다 차도가 있으면 덩달아 기뻐지기도 합니다. 수녀님들이 손수 꾸미신 복도의 전경과 변함없이 따뜻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병원을,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져서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 일이기에 항상 그러한 자세들을 본받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하면서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간호학생으로서 후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간호할 예비 간호사로서 좋은 선생님들, 수녀님들과 함께하고 그 분들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하며,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녀님,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후원자\_ 김용승 아오스딩

어릴적 가난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초가집에 방 두칸, 대문 옆에 외양간이 있는 초가지붕 아래 아버지, 어머니, 칠남매가 살았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없어서 초등학교에 다녀오면 씨래기 죽에 밥풀이 썰 수 있을 만큼 항상 모자라게 밥을 먹으며 살았어요. 저는 다섯째로 위로는 도시로 취업을 나가고, 내 나이 14살에 취업을 나갔다가 몸이 아파서 18살에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아버지는 탈장으로 밤중에 고통을 참으시다 30리를 걸어서 오산의 기독교 병원에 가니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밤새 끙끙 앓으시다 새벽에 다시 걸어서 병원을 가시니 기독교 재단에서 지원하여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자녀들이 걱정하여 방문 하려고하니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 한번은 내가 남을 도와주려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허리 골절로 쇠심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에 곧바로 병원 응급차로 옮겨져 성 빈센트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힘든 수술을 마치고 잠도 못자고 누워 있었는데 밤 11~12시쯤 의사가 어느 보호자를 불러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동의서를 쓰라고 하니 목소리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

머니는 ‘나는 아이들과 내일 아침을 굶어야 한다.’며 수술비가 없어서 의사가 돌려보내는 상황에서 왜 내가 눈물이 그리도 나오는지... 아버지도 남의 도움을 받으셨고, 나도 가난을 겪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누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난도 못 면했을 것이고, 지금의 나도 없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를 늘 생각했던 저는 제가 가진 10분의 1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이곳 저곳을 찾게 되었고, 어느날 방송을 보다가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곳이 있다가에 포털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며 성가복지병원에 봉헌하기로 마음을 먹고나니 유혹이 많아서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맹세를 다지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도 유혹이 있더군요. 내가 목장에 목초지로 삼천 오백만원에 구입하였으니 팔아서 이천만원만 봉헌할까 아니면 땅으로 봉헌할까를 2~3년은 고민하다가 땅으로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아버님의 병원비요 어느 중환자실 그분의 눈물 값으로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 아오스딩 후원자님은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자녀 공동명의로 화성시에 위치한 땅을 매각하여 성가복지병원 앞으로 매각 처리대금을 후원금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 < 아들의 글 >

아버지가 저희한테 했던 말 중에 가난을 물려주지 싫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저희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저만큼 행복하게 잘 자란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항상 존경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결 맘 놓으시고 이제 아버지의 인생을 사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이제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보답 하면서 살게요. 그러니 오래오래 사시는데 제 바람입니다.



## 감사의 마음

이후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린 9, 15 -

## 나누면 보이는 소중한 것들

외래진료 봉사(정형외과)\_ 조이현

2004년 봄부터 시작된 성가복지병원에서의 의료봉사 인연은 우연적이고(serendipitous) 조금은 즉흥적으로 시작 되었다. 어느 주일미사 후 주보에 의료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본 아내가 제안을 하였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감사한 마음을 봉사를 통하여 실천 해보는게 어떨까? 의료봉사에서 봉사라는 단어는 생소하고 어찌면 거창했지만 의료라는 것은 나의 업으로 항상 해오던 일이었기에 첫 발을 내딛음에 있어 망설임은 덜 했던 듯 하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봉사의 첫날, 진료를 받기 위하여 진료 시작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환자들은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부터 생업으로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외국에서 건너온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분들 중에는 먼 길을 고생스럽게 오시고 진료가 있는 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환자가 다수 있었다. 도움이 절실한 환자를 진료 한다는 것은 큰 보람이 있기에 환자를 진료하는 봉사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2시는 환자들과 나와의 작은 암묵적 약속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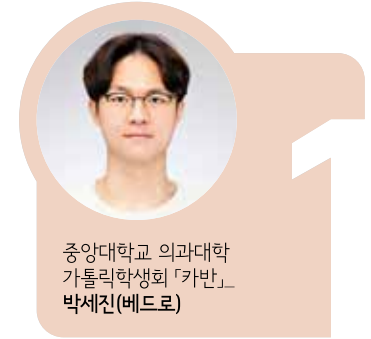
진료에서 간단한 수술을 해줄 수 있어서 의사로서 뿌듯함도 있었고, 한국어가 서투른 환자와의 소통에서는 어려움을 느껴 난처했던 순간도 있었다. 이는 봉사 속에서 의사로서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발휘토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자들의 다양한 문화, 배경, 그리고 언어 넘어서에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이웃이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가복지병원의 봉사자들과 함께 하기에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도 큰 보람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진료 봉사이지만 이 외에도 성가복지병원 봉사자들의 의료 지원, 호스피스 케어와 무료급식 등 다양한 사랑의 실천과 노고 속에서 봉사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한마음으로 실천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

봉사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니 『Into the Wild』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토퍼는 초월주의의 영향을 받고 행복을 찾기 위하여 최소한의 것들만을 챙겨 혹독한 알래스카 대자연으로 홀로 무모하게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고독한 여정 끝 죽음을 앞둔 크리스토퍼는 행복에 대해 일컫기를 “Happiness is real only when shared”라 하였다. 행복은 나누고 함께 하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모습의 행복이란 의미로 생각해본다면, 죽음을 직면한 청년이 깨달은 행복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주는 듯하다. 하느님의 자녀인 이웃과 어우러져 온정을 나누고 소외되지 않게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끝으로 봉사를 하고 내 능력을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되고 기쁜 일 이지만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파장력이 있는듯하다. 아들의 18년 전 초등학교 일기장에는 봉사 활동을 하는 아빠를 따라서 훗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본인도 봉사하겠다는 귀여운 다짐이 있었고, 주변 지인도 본인의 공동체에서 봉사를 시작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오늘날 내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 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나눔을 실천할 용기가 된 것 같기에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번 달 역시 환자들과의 약속 장소로 향한다. 많은 이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그게 삶의 일부가 된다면 오늘보다 살기 좋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성가복지병원 봉사활동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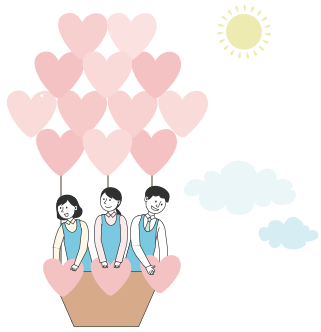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카반」  
박세진(베드로)

안녕하세요! 저는 중대의대 가톨릭학생회 ‘카반’ 반장을 맡은 본과 3학년 박세진 베드로입니다. 동아리의 반장이 된 이후,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동아리 미사와 활동도 못 하면서 그동안 했던 봉사 활동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수소문하던 중에 본당 신부님의 소개로 성가복지병원을 알게 되어 환자들을 위한 목욕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남을 씻겨주거나, 간병해 본 적 없는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잘 씻겨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저희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녀님들께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들께서

는 예비 의료인인 저희에게 병원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가까워질 기회를 주시고자 많은 도움을 주시며 친절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 병동 실습을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환자로서 병원에 갔던 제가 이제는 의료인으로서 환자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점점 나와 같은 ‘환자 000씨’가 아니라 그저 ‘간암 환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며 차갑고, 공감하지 못하는 딱딱한 의사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가복지병원에서의 목욕 봉사활동은 환자들과 제가 한 인간으로 공감할 수 있는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습 병동에서처럼 예비 의료인으로 환자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을 맞대고 깨끗이 씻겨 드리다 보니 저에게 특별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찢찢했던 몸을 깨끗이 씻고, 개운해하시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끼고, 봉사하고 나면 땀으로 몸과 옷이 젖기는 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께 목욕시켜드리는 방법을 배우면서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 물 온도가 적당한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그리고 춥지는 않으신지 등을 여쭙보면서 타인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무엇인지 점차 깨

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돈도, 갈 곳도 없어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을 도우셨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분입니다. 성가복지병원을 운영하시는 수녀님들과 이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목욕 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와 낮은 자세에서의 겸손함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봉사활동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저의 인생에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큰 은총을 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은총을 받길 바라며 이곳을 거쳐 가는 모든 분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카반」  
정지혁(미카엘)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 동아리 소속으로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은 총 10명으로 여기에는 가톨릭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같은 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매주 4명씩 남녀 학생들이 같이 봉사 활동을 하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가장 주된 봉사는 환자분들을 목욕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복지병원에 봉사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저희를 포함하여 수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봉사하러 왔을 때 완전히 무료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이를 위한 기반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기부라는 점을 수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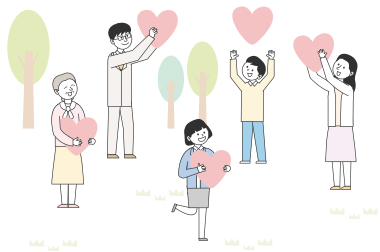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원하기 어려우신 환자분들에게 무료로 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이 3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안에 불러일으키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느낀 점은 그럼에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매주 2~3분을 씻겨드리는데, 이렇게 저희가 씻겨드린 후에도 목욕 봉사를 받으셔야 할 환자분들이 남아 있습

니다. 목욕 봉사 외에도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무료 밥집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이 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병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봉사를 하면서 환자분들에 대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정서적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목욕 봉사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몸의 거동이 어려우신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씻겨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치료과정에서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만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신부님, 봉사자 분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수녀님 그리고 늘 애써 주시는 병원 직원 분들과 의료정보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님의 사랑이 언제나 이곳에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 성가 소식

1월



04. 시무식



29. 설 연휴 선물나눔



28. 소원나무 이벤트

2월



11. 세계병자의 날 선물 나눔



15. 성북우체국 후원방문

3월



02. 창동성당 빈첸시오회 후원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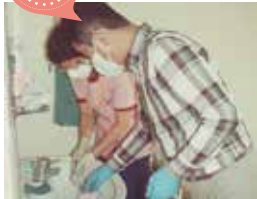


02. 월례조회 '할 말 있어요'



08. 산부인과 진료 시작

4월



06. 부활맞이 대청소



16. 부활선물 나눔



5월



07. 어버이날 카네이션, 홍삼 선물



13. 영훈초등학교 4학년 지역탐방



14.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후원방문



14. 전국여성법무사회 후원

6월



10. 부천성모 사회복지사 방문



11. 치과진료 시작



17. 영훈초등학교 방문  
(성가복지병원 소개)

7월



22. 개원32주년 감사미사



22. 개원기념 퀴즈 이벤트



22. 근속상 수여  
(5년, 10년, 20년)

8월



05. 새사제미사



9월



03. 추석선물 나눔



17. 무료밥집 시작



23. 의료기기 점검 봉사  
(기톨릭대학교 부천성모 의공팀)



16. [쉼터; Gaia] 축복식

10월



05, 12, 17. 직원 소풍



26. 서울애화학교 '건강 지킴이 키트' 후원



27. 강원도 화천농장 '배추 후원'

11월



04. 영훈초등학교 'A4 복사지 나눔 플로잉'



16. 소방 시설물 안전점검

12월



01. 석교상사&이승엽 야구장학재단 후원금 전달



09. 서울남서로타리 클럽 후원방문



24. 영훈초등학교 1학년 3반 성탄공연



24. 성탄선물 나눔





**【쉼터; Gaia】의 의미**

Gaia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신, 창조의 여신의 이름으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쉼터; Gaia】는 우주적 연대의 집으로 세상과 맺는 관계 방식, 지구를 위한 사명감, 대안적 삶을 위한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지향하고 다짐하는 단호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영성적 의미**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는 지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Gaia는 창조주 하느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구에 육화하신 하느님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모든 존재가 자기만의 고유한 몫으로 기여하는 전 지구적 공동체성을 의미하며, 하느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회복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쉼터; Gaia】 공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밥집과 임시 거주처가 필요한 여성들의 쉼터로 운영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연대의 그물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관계 회복의 대안적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축복식 모습  
2022. 9. 16.



【쉼터; Gaia】 1층에서 9월 17일부터 무료밥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밥집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환대받고 존중받아야하는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무료 밥집**

운영시간 :  
 화요일, 토요일  
 11:00~14:00



※ 【쉼터; Gaia】 지하1층 무료 샤워실 이용과  
 이-미용 봉사 운영시간 안내는 소식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

성가복지병원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 자원순환 PROJECT

# 제로웨이스트



# 자원순환 PROJECT

성가복지병원은 100% 자원순환지향 '아로마티카'의  
 [JOIN THE CIRCLE]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지역 안에서 성가복지병원과 성가소비녀회 수녀원,  
 길음성가어린이집에서 모아진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뚜껑은  
 아로마티카에서 직접 방문 회수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 자연순환 과정

- 1 공병과 페트를 직접 수거  
(깨끗한 상태의 단일 소재를 모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
- 2 2. 플레이크 공장 / 펠릿 공장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공장으로 바로 보낸다)
- 3 재활용 용기 & 굿즈 제조공장
- 4 아로마티카 제품으로 재탄생!



» 분리 배출 순서

- STEP 01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 /뚜껑 분리
- STEP 02 헹구고 말린다.
- STEP 03 찌그러 뜨린다.

» 제외 대상

- 일회용 아이스커피 컵
- 발수 코팅 과일트레이 (일반쓰레기로 배출)

그 외에도 직원, 봉사자와 함께 자연순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 위해 우유, 두유팩, 마스크 회수함을 두어 재활용 단체에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란?

쓰레기(Waste)를 '0'(zero)으로 줄이자는 의미의 환경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며, 낭비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병원 내 북카페에 제로웨이스트 무인판매대를 두어 환자, 직원, 봉사자, 후원자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을 알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실천들이 지구와 미래세대에 생명의 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01 Refuse (거절하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 거절하기
- 02 Reduce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03 Reuse (재사용하기)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사용하기
- 04 Recycle (재활용하기) 재사용할 수 없을 때 재활용하기
- 05 Rot (퇴비화하기)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나 사료로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제로 웨이스트 5R 운동

[출처]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비 존슨)



# 2022 물품 후원자

2022. 12. 22. 기준

## 쌀, 식재료 외

강정마을 공소  
강주원  
고경애  
고서형  
고창현  
근속직원 일동  
길음동성당  
김근대기념치유센터 '숨'(이화영)  
김선동(시문)  
김승언(세실리아)  
김옥선(젼마)  
김은희  
김인득(안나)  
김인숙(데보라)  
김인숙(오피마인드)  
김진성  
김혜자  
나플래움  
동일방앗간  
들꽃침터교회(김중곤목사)  
명동여성연합회  
문은경  
박성훈  
박용건  
변정윤  
보라매병원  
사랑나눔 공동체  
사랑터  
서상범(마태오)  
서울남서로타리  
서주영  
서한별  
성곡수산  
성모자애드림힐  
성북구청  
송병구  
송영숙  
송천동성당  
양금순 환자 보호자  
양휘자  
양휘자  
영훈초등학교  
오도희  
우리은행  
우영개발  
우중순(진절떡방)  
유옥순

유원회 보호자  
유지혜  
유진상회  
유홍준  
이금숙  
이선옥  
이선형  
이선희  
이옥화  
이인월(안젤라)  
김선동(시문)  
이해란  
이후남(수유시장)  
익명  
장하리  
전국여성 법무사회  
전사자  
전윤진, 전윤제, 송혜민  
정은선  
정화숙  
조혜행(헤레나)  
송가진  
중앙동 성소후원회  
중앙동성당  
(주)정명양품  
(주)제이씨디  
중앙동 약현성당  
중앙축산  
쪽방상담센터  
청년문간  
최남주  
푸드뱅크  
하상바오로의 집  
한강성당  
현대농육  
화천 농장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 의류

김승언(세실리아)  
김태군  
소망을 찾는 교회  
송숙  
안동규  
양휘자  
영훈초 1-3반 학부모  
이근자  
이미순

이중옥  
익명  
인정제  
재경 춘천여자 고등학교 동창회  
정발산성당 빈첸시오회  
한국사랑나눔 공동체  
홍현희(헤를린다)

## 생활용품

고서형  
권기대  
김지훈  
김진성  
사랑터  
삼복우체국  
영훈초등학교  
정재웅(올프란드)  
최미려  
최영숙(소화데레사)  
대창산업

## 의료용품 외

구자선  
극동메디칼  
대합성의료기  
디오테옴파울  
라이프 덴토 메디칼  
박종호(썬에스제이파워)  
서울애화학교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이미순  
이영희  
이은미(모니카)  
이홍교  
익명  
자양2동성당빈첸시오회  
조예성  
(썬)친우매드  
최동주(라이프 덴토 메디칼)  
태창산업  
푸드뱅크  
한정희(스텔라)

## 기타

방선옥 : 십자가 조형작품

# 2022 신규 후원자 명단

2022. 12. 22. 기준

(주)아모레퍼시픽  
CG그룹  
강천희  
강희원  
고은희  
고효정  
곽윤주  
구경신  
구용범  
구주령  
구혜영  
권윤기  
김가경  
김경화  
김관우  
김근해  
김근희  
김남규  
김도희  
김면중  
김미옥  
김미화  
김민선  
김선희  
김송근  
김순자  
김영일  
김용승  
김우진  
김운영  
김윤진  
김은정  
김정환  
김지수  
김지환  
김진  
김진주  
김창석  
김한이  
김형진  
김혜원  
김호진  
김효남  
김희순

김희준  
나세준  
도현구  
민상현  
민진실  
박금순  
박미지  
박보민  
박상준  
박수훈  
박순천  
박영덕  
박중성요한  
박지성  
박진현  
박찬홍  
박향숙  
박희순  
배숙희  
배승욱  
배정현  
배주아  
서순희  
서영자  
서정총  
서지영  
서희승  
성정은  
송동일  
송명희  
송문현  
송소순  
송슬아  
송은정  
신우철  
신유정  
신익철  
신종선  
신지연  
심규범  
심기순  
심혜연  
심호  
양금연

오요셉  
오한나  
왕인순  
유수미  
유현구  
유홍준  
윤하영  
이경란  
이금수  
이미영  
이미희  
이상민  
이상윤  
이상준  
이상현  
이상훈  
이소윤  
이수경  
이수민  
이승윤  
이용준  
이운성  
이은섭  
이은재  
이재금  
이재철  
이중순  
이주엽  
이지현  
이해나  
이혁준  
이형  
이형자  
이형준  
이효주  
임방경  
임세이  
임시백  
임전경  
임풍심  
임화진

장계필  
장성호  
장이준  
장정은  
전다원  
전해솔  
정경옥  
정미숙  
정수민  
정은진  
정현서현  
조민주  
조성순  
조원구  
조은비  
조준환  
조형일  
주선형  
주영민  
(주)이지스자산운용  
지양욱  
지용민  
차현숙  
천복자  
최광수  
최미선카타리나  
최성진  
최영태  
최은자  
최창석  
최해용  
최현아  
한각수  
한미영  
한승민  
한혜민  
홍상훈  
홍수현  
홍연표  
홍영희  
홍정은  
황광호  
황보정표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소중한 나눔을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 봉사신청 안내

홈페이지 봉사자모집 게시판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통해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인들을 위한 미사 & 기도 봉헌

후원자, 봉사자 분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미사 봉헌과 매일아침·저녁기도 시간에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회원님과 명의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은 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전화** 02-940-1501, 1502  
**메일** bobinhuwon502@daum.net

###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자

홈페이지 게시판, E-mail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송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후원회 E-mail** bobinhuwon502@daum.net

### 병원 소식 보기

**홈페이지** <https://www.sgbokji.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gbokji\\_/](https://www.instagram.com/sgbokji_/)

※ 카카오톡 채널은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2021년 환자 진료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외래진료		입원 (연인원)	호스피스 병등 사망자	
	초진	재진	계			
2021년		347	16,695	17,042	2,584	33
1990~2021년		29,157	630,605	659,762	693,520	3,315

### 후원금(물품)내역 및 사용결과보고

(단위: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법인 보조(후원금)	3,761,687	사업비	356,972
기부 물품 (약품, 의료소모품, 급식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외)	214,525	인건비	1,873,502
		관리운영비	221,266
		잡지출	1,570,333
기타 수입	85,362	재산유지조성비	39,501
계	4,061,574	계	4,061,574

### 후원 방법

- **자동이체(CMS)** : 신청서 작성 ▶ 금융결제원에 송신 ▶ 매월(5일, 15일, 25일) 이체하는 방법
- **지로** : 지로 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이용 시** : 지로번호 7529458
- **온라인 계좌이체** : 후원자가 은행에 신청하여 후원하는 방법

### 성가복지병원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17-25-0001-379
- 신한은행 140-000-247209
- 우체국 013474-01-000253
- 우리은행 048-068235-01-015
- 기업은행 006-000141-04-010
- 하나은행 289-810001-70404
- 신한협 01168-12-000238
- 제일은행 226-20-412973
- 농협 051-01-184347
-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